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창사 55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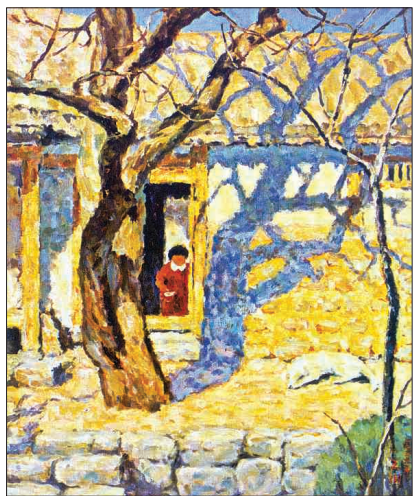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향 광주의 오늘을 있게 한 구상회화의 선구자 서양화가 오지호(1905~1982) 화백의 대표작 한 점 없는 게 지역의 현실이다. 오지호 화백의 유작들은 지난 85년 당시 이 지역에 전용 미술관이 없어 부득이 과천 현대미술관의 수장고로 보내졌다.

이에 따라 문화계 일각에선 오는 9월 새 광주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만큼 지역 현실 때문에 광주를 떠나야 했던 오 화백의 유작을 되돌려 받자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의 창간 55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장하고 있는 오지호 화백의 작품 반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창사 55주년 캠페인으로 ‘오지호 유작 돌려 받자’를 연재한다.

1 유족은 광주영구전시 원했다

2 과천 지하실에서 우는 수작들

3 시민 힘으로 광주 자산 찾아야



‘남향집’(1939년 작)

눈물로 떠나보낸 광주의 문화 밀천 되찾아야

오지호 화백은



오지호 화백은 한국적 인상주의 미학을 개척한 구상회화의 선구자다.

오 화백은 일본 유학시절 세잔느와 반 고흐 등이 중심이 된 후기인상주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서구의 경향을 답습하지 않고 향토적인 민족경서와 민족적 색채를 완성한 대가로 꼽힌다. 오 화백은 평생 빛을 바탕으로 자연의 생명력이 한껏 발현되는 우리나라 환경을 화

회를 결성,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삶을 실천했다.

개성 송도고 교사 재직시 창씨개명과 일본 전쟁화를 그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표적인 일화로 회자된다.

그는 또 왕성한 평론으로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미학 이론의 대가였다. 지난 1939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현대 회화의 근본 문제’를 통해 당시 피카소의

한국적 인상주의 개척 구상회화 선구자

폭에 담아 왔기 때문에 ‘빛을 그린 화가’로도 불린다.

화실에서 태어나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그의 활동은 그 자체가 미술사다. 지난 1938년 사재를 들여 발간한 ‘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은 국내 최초의 컬러 화집이다.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그는 일본이 주창하는 조선미술전람회 맞서 녹향

추상미술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자로서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오 화백은 한글 전용운동에 맞서 ‘한자폐지론 비판’ 논문을 발표한 뒤 자비로 국어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국한문 전용운동에 전념했다. 대한민국예술원회원, 대한민국예술원 학술원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지호 화백 장남 오승우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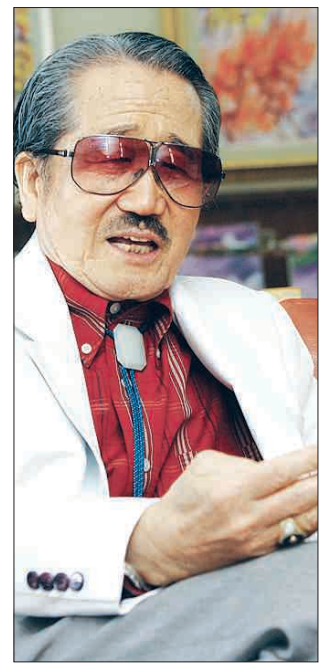
“당시 기증했던 작품들이 아버지(오지호 화백)의 창작 산실이었던 광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오지호 화백의 장남 오승우(77)씨는 유작 34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고인의 작품이 고향에서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감추지 못했다.

오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 화백이 82년 타계한 뒤 ‘내가 죽기 전에 작품을 영구보존할 방법을 찾으리라’는 어머니 지양진 여사의 뜻에 따라 작품기증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작품 있어야 할 곳은

靈感 준 남도땅 광주 뿐”



“초가에 그림을 보관하다 보니 어머니가 부스럭 소리 나도 작품 도난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고생이 심하셨어요. 이 때문에 임버릇처럼 작품기증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당시 열악한 전남의 경제 사정상 미술관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한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연감생심이었다고 했다.

오승우 화백이 서울 흥은동 자택에서 지난 1985년 오지호 화백의 유작 34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아오는 대답은 작품을 받아줄 공간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사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씨는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작을 광주로 가져오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매우 반갑다”며 “작품 기증자로서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982년 12월25일, 한국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광주 지산동 자택에서 눈을 감는다.

오 화백의 영면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미술계가 커다란 손실로 받아들일 만큼 충격이었다. 대담한 터치의 화사한 색채감으로 한국적 인상주의의 전형을 창조한 그가 원숙한 작품 세계를 한창 추구할 나이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949년 조선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부임한 뒤 제자들을 배출함으로써 ‘호남화파’의 산파역을 했던 오 화백의 타계는 광주 미술의 태두(泰斗)를 잃은 것에 다를 아니었다.

그러나 더 큰 손실은 그의 타계와 함께 예술의 혼을 담고 있는 작품까지 광주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작품을 보관, 관리할 형편이 못됐던 유족들은 ‘서둘러 작품을 영구보관할 곳을 찾으라’는 미망인 지양진(1998년 작고) 여사의 뜻을 받들어 기증처를 찾게된다. 작가에게 타향이나 다름없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었다.

조선대 교수 시절 홍익대 미대를 비롯 전국의 대학에서 수차례 그를 초빙하려 했지만 한 발자국도 광주 밖으로 내딛지 않았다. 하지만 오 화백이 숨진 뒤 그의 작품이 그토록 사랑했던 광주를 떠나게 된 것이다.

지난 1985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에 건네진 작품들은 오 화백의 전생애를 대표하는 작품 34점이다. 오화백 스스로 ‘작품 활동에 문을 연 작품’으로 꼽는 대표작 ‘남향집’(1939)을 비롯 ‘처의 상’(1936) ‘로테르담 항구’(1975), ‘아프리카 절필’(1982) 등 하나같이 오 화백이

게다가 광주시립미술관은 소장 작품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측에 오지호 화백 작품 2~3점씩을 해마다 대여해 전시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되풀이했다. 이마저도 국립현대미술관측이 작품 보존을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중단, 현재 부국문화재단의 소장작 2점을 빌려 전시공간을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지호 선생의 작품을 받아줄 ‘그릇’이 없었던 때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시립미술관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미술관 독립건물이 없었던 광주시립미술관이 복구 중흥동 비엔날레 인근에 미술관 건물을 신축,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시비 181억원과 국비 78억원 등 모두 25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될 시립미술관은 대규모 국제전을 개최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완벽한 작품, 보존과 수장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립미술관은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문화 원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관에 맞춰 오지호 상설관을 확대 개편할 계획을 세우는 등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때맞춰 지역 미술계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 화백의 작품을 전시할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대가의 작품을 시립미술관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서양화의 효시인 오지호 선생의 작품을 광주로 가져온다는 것은 광주예술의 ‘뿌리찾기’는 물론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양화가 진원장(조선대 미대 학장) 교수는 “광주에서 문화중심 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광주문화예술의 뿌리인 오지호 화백의 대표작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오 화백의 작품을 광주로 되돌리는 것은 문화중심도시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향집’ 등 대표작 34점 보관장소 없어 현대미술관 기증

9월 새 미술관 건립 맞춰 “유작 돌려 받자” 공감대 확산

당시 유족들은 오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김창식 전남도지사(광주·전남 분리 이전)를 비롯 관련 기관을 방문, 작품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돌아온 대답은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이었지만 당시 전남도의 경제적 여건상 ‘오지호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작품을 보관할 장소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았던 때였다.

제자들을 주축으로 ‘오지호 미술관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전남도가 미술관 건립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일생과 예술이 담긴 역작이다.

이 작품들은 오 화백이 숨지기 전까지 광주 지산동 화실에 걸어두고 감상했을 정도로 아끼던 작품들이었다.

오 화백의 대표작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후 거장의 작품은 광주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1992년 개관 당시 오지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상설관을 마련했으나 현재 전시중인 작품은 고작 12점이다. 대부분 주요 작품들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한 상설관으로 전락, 외지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다.

광주사람들과
사랑이 바바지다

은실가스 걱정없는 대한민국의 하늘, 보면 볼수록 더 푸르려집니다
자꾸자꾸 하늘이 좋아집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새 천년 꿈과 빛을 전하는
한전KPS(주)
영광사업소

光州日報 55
창사 1952-2007